

삼성 KPMG

ISSUE MONITOR

제61호

September 2016

삼성KPMG 경제연구원

한-중 FTA 발효 반년



Contacts

**The contacts at KPMG in connection
with this report are:**

김광석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7438

gwangsukkim@kr.kpmg.com

차윤지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6914

yoonjicha@kr.kpmg.com

Contents

	Page
Executive summary	4
한국의 수출과 한-중 FTA	5
1) 한국의 수출침체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심화	5
2) 한-중 FTA 주요 내용	6
연구 개요	7
한-중 FTA 발효 전후 동향	8
1) 종합 : 한-중 FTA가 대중 교역 감소폭을 낮춰	8
2) 화학 : 중국의 화학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축소가 한국 기업에게 긍정적으로 작용	9
3) 기계 : 중국의 투자위축에 따른 기계설비 수요둔화로 한-중 FTA 효과 미진	10
4) 소비재 : 한-중 FTA 발효 후 관세가 즉시철폐된 소비재 교역이 크게 확대	11
5) 철강 : 한-중 FTA에도 불구하고, 산업 침체와 철강가격하락으로 수출침체 지속	12
6) 전자-전기 : 기술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중 FTA 발효 후 교역여건 개선	13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전략	14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되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한국 수출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의 발효는 한국 수출 부진을 타개할 동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최대 인구 대국이자 한국의 최대교역국이며 한국 기업들의 주력 수출시장이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FTA 발효는 한국경제 및 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 FTA의 발효 전후 대중 교역 동향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향후 한-중 FTA 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ecutive Summary

■ 한국의 수출과 한-중 FTA

- 한국의 수출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특히 한국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대중 수출이 크게 축소되어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한-중 FTA 협상으로 50% 이상의 교역품목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한-중 FTA가 발효된 반년이 지난 지금 그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기업의 대응전략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

■ 한-중 FTA 발효 전후 동향

- **종합** : 글로벌 과잉공급 및 중국 경기 부진 등에 따라 한국의 대중 교역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나, 한-중 FTA의 발효로 교역규모 감소율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화학** : 중국 정부의 강한 환경규제로 인한 상당수 중국 화학 공장의 폐쇄와 한-중 FTA의 발효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가 맞물려 한국 화학 수출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
- **기계** : 중국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둔화로 중국의 수입 수요 자체가 감소하여, 기계 수출은 관세 인하에도 수출이 증대 되지 못함
- **소비재** : 소비재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특성을 가지고 있어, 관세철폐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었고, 한류나 소비재 수출 진흥 정책 등이 맞물려 한-중 FTA의 긍정적 영향을 받음
- **철강** : 중국의 철강 과잉 공급으로 중국산 철강재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철강재 수출은 한-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에도 중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전자·전기** : 한-중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나, 한-중 FTA 협정으로 전자기기 품질 인증 시험성적서 상호 인정 등 비관세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한-중 FTA가 향후 전자·전기 제품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전략

- 수출 기업들은 한-중 FTA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FTA를 적극 활용하여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내수 중심 기업들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략에 대비할 전략을 수립할 필요
- 기업들은 수출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한-중 FTA 발효 반년,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한국의 수출과 한-중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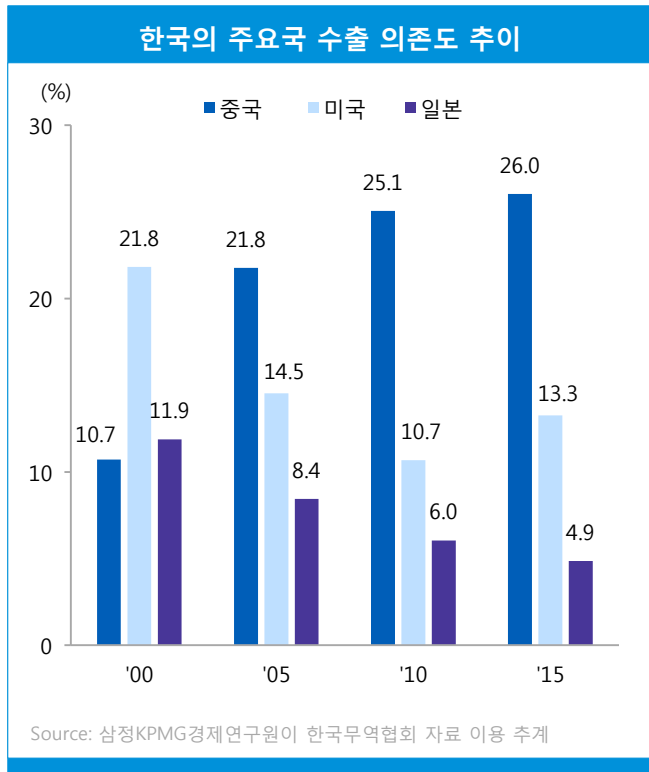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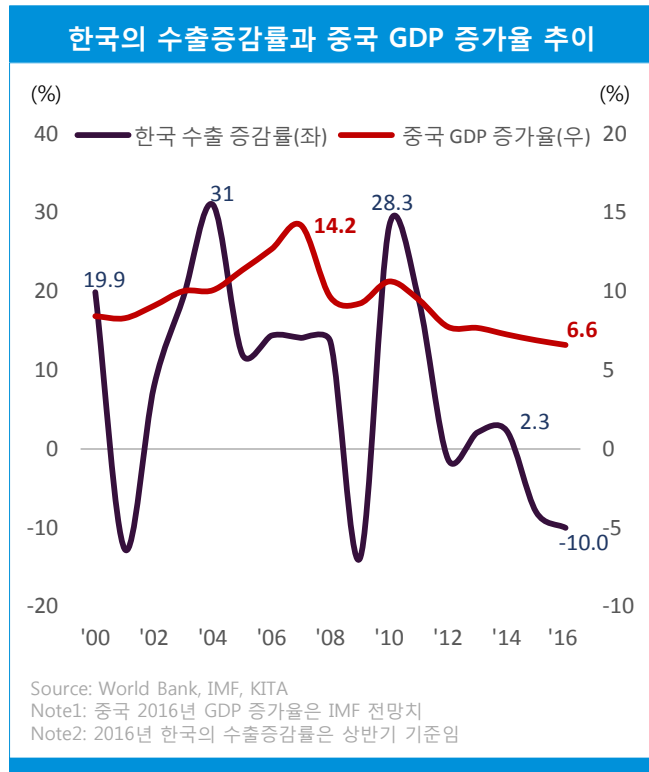
“ 중국 성장 속도는 둔화되는데,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심화 ”

한국의 수출침체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 심화

한국의 수출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증감률은 2000년 19.9%, 2010년 28.3 %에서 2014년 2.3%, 2016년 상반기 -10.0%로 크게 침체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으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및 세계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크게 둔화되고 있다.

20년 넘는 기간 동안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며 고속 성장을 해오던 중국은 구조개혁, 공급 및 설비투자 과잉, 글로벌 저성장 등의 이슈로 인해 2015년 6.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2016년 1분기 중국 GDP 증가율은 6.7%이며,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6.5-7.0%로 잡고 있다. IMF 역시 중국의 2016년, 2017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6.6%, 6.2%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대중국 수출 부진을 통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는 2015년 26.0%로 한국 수출의 1/4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 수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FTA의 발효는 기업들의 중국 진출 여건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을 타개할 방안으로 기대되었다.



한-중 FTA 발효 반년,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한-중 FTA 주요 내용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개시가 선언되었다. 2012년 5월 1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4년 11월 6일까지 약 2년여간 총 14차례 협상 끝에 2014년 11월 10일 최종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상이 타결된 이후 한-중 FTA는 정식서명을 거쳐 2015년 8월 국회에 상정되었고, 2015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12월 20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 한-중FTA 협정을 통해 양국 간 전체 품목의 50% 이상을 즉시철폐키로...” ”

한-중 FTA 협상에서 한-중 양측은 협정 발효 후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의 즉시철폐 품목은 금액 기준으로 56.5%이며, 중국의 즉시철폐 품목은 52.3%에 달한다. 양측 모두 금액 기준 즉시철폐 품목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중국은 10년 단계적 철폐의 비중이 30.7%로 가장 높으며, 한국은 즉시철폐 품목의 비중이 49.9%로 가장 높다.

한-중 FTA는 한국은 농수산물을, 중국은 전자산업 등을 취약산업으로 정해 시장개방 최소화를 고수했기 때문에 한-미 FTA, 한-EU FTA에 비해 개방도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 대 한국 교역 규모가 커 이와 같은 상당한 규모의 관세 철폐는 향후 대중 교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중 FTA 상품 양허 결과 »

(단위: 천 달러, %)

구분	중국 양허				한국 양허			
	품목수	비중	'15년 對한국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15년 對중국 수입액	비중
즉시철폐	1,649	20.1	90,089,874	52.3	6,108	49.9	49,766,999	56.5
5년 철폐	1,679	20.5	4,145,745	2.4	1,433	11.7	3,506,100	4.0
10년 철폐	2,518	30.7	27,522,643	16.0	2,149	17.6	19,078,698	21.7
15년 철폐	1,108	13.5	19,524,290	11.3	1,106	9.0	7,637,509	8.7
20년 철폐	474	5.8	8,575,221	5.0	476	3.9	1,383,054	1.6
부분감축	129	1.6	9,378,892	5.4	108	0.9	2,031,593	2.3
양허 제외	637	7.8	12,879,983	7.5	852	6.9	4,698,939	5.3
총 합계	8,194	100	172,115,648	100	12,232	100	88,102,892	100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한-중 FTA 발효 반년,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연구 개요

연구 목적

한-중 FTA 정식 발효(2015년 12월 20일) 이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 한-중 교역구조를 점검해보고, 한-중 FTA 발효 전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기업들에게 향후 전략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중 FTA 발효 후 6개월간의 짧은 시계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중 FTA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보다 동향을 점검하는데 의의를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 방법

한-중 FTA 발효 전후 대중 수출·수입 동향을 양허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화학, 기계, 소비재, 철강, 전자·전기의 주요 5대 산업별로 관세가 즉시 철폐된 품목과 그 외 품목들을 비교·분석하였다. 한-중 FTA 발효 전과 후의 양국간 수출입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계절성을 감안하여 2015년 상반기와 2016년 상반기를 비교하였다.

데이터 분석

분석대상 : 한-중 FTA 발효 이전과 이후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 데이터와 한국의 대중(對中) 수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중 FTA 중국 측 양허표가 HS 8코드 기준으로 작성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 분석에는 HS 8코드를 기초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의 대한 수입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산업별 분석 : 화학, 기계, 소비재, 철강, 전자·전기의 주요 5대 산업을 분석하였다. HS 품목 분류표를 참고하여 해당산업별로 품목을 분류하였으며, 소비재의 경우 HS 품목 분류상 산업이 여러 분류에 걸쳐있음을 감안해 UN BEC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 산업 분류 >>

산업 분석	HS	UN BEC
화학	28-38	
기계	84	
소비재		112,122,51,522,61,62,63
철강	72,73	
전자·전기	85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한-중 FTA 발효 반년,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한-중 FTA 발효 전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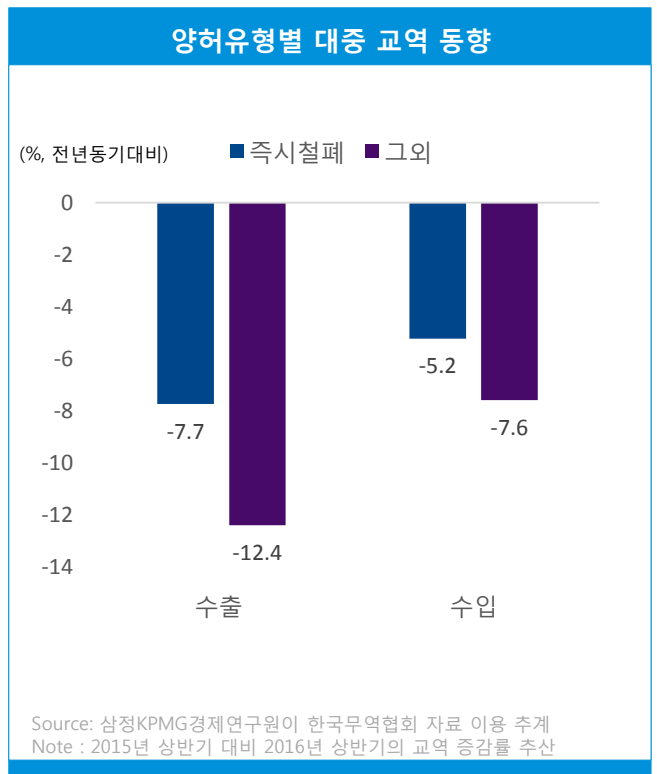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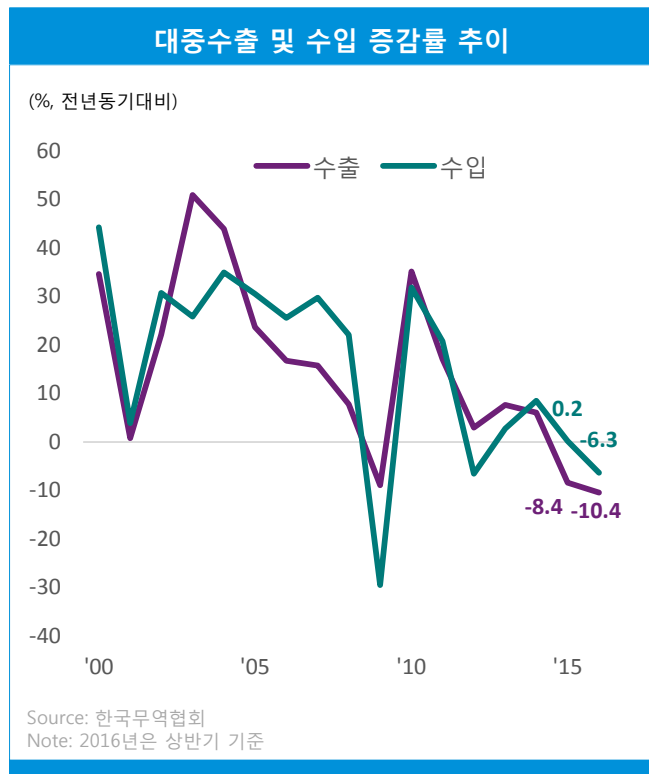
“ 대중 교역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한-중 FTA가 감소율 완화 역할 수행 ”

종합 : 한-중 FTA가 대중 교역 감소폭을 낮춰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해 대중 수출과 수입이 모두 둔화되어 전체적으로 대중 교역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대중 수출 증감률은 2015년 -8.4%, 2016년 상반기 -10.4%를 기록하였고, 대중 수입은 각각 0.2%, -6.3%를 기록하며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수출의 약 26%를 차지하는 대중 교역이 축소되는 현상은 한국의 대외거래에 상당한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의 발효는 교역 규모 감소율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한-중 FTA 전과 후의 동향을 살펴보면, 대중 수출과 수입 모두 즉시철폐 품목의 감소율이 그외 품목의 감소율보다 작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대중 수출의 경우 즉시철폐 품목의 감소율은 -7.7%, 그외 품목은 -12.4%로 나타났으며, 수입은 각각 -5.2%, -7.6%로 나타났다. 즉시철폐 품목과 그외 품목의 차이를 보면 한-중 FTA는 실제로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교역에서는 수출, 수입 모두 한-중 FTA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세부 산업별로는 각 산업에 종사하는 수출 기업 경쟁력과 내수 기업 경쟁력, 중국의 수입수요, 주력 품목의 관세철폐 여부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후 장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은 주요 산업별로 살펴볼 것이다.



한-중 FTA 발효 반년,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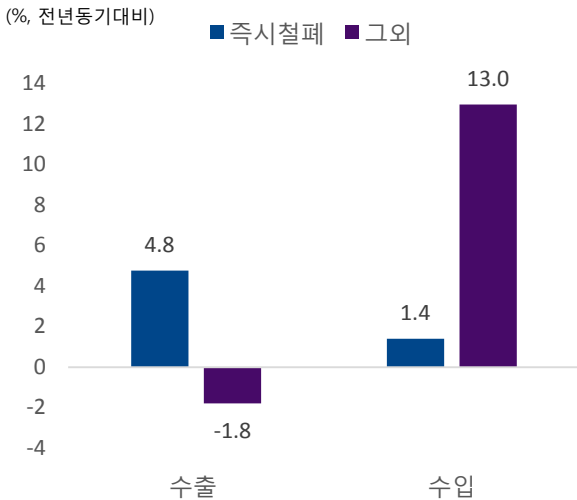
화학 : 중국의 화학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축소가 한국 기업에게 긍정적 작용

“ 중국 정부의 강한 환경규제에 따른 공장 폐쇄로 중국의 화학 제품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수입 수요는 증가 ”

한국의 화학산업 내 대중 수출은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화학산업 내 즉시철폐 품목의 증감률이 플러스를 기록하였고 그외 품목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의 전례 없는 강력한 환경규제에 따라 중국의 화학산업 생산량이 감소한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4월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을 시행하였다. 대다수 화학 업종이 관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16년 들어 상당수의 화학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한-중 FTA에 따른 관세 철폐와 맞물려 한국 수출 화학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대중 수입에서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즉시철폐 품목보다 그외 품목의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안료색소 (HS 3204170000), 화이트카본 (HS 28112210000), 아조디카본아미드 (HS 2927002100), 탄화텅스텐(HS 2949909010) 등의 즉시철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들의 수입 증가가 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화학은 주로 가공무역의 형태로 산업이 구성되어 중국에서 값싼 원재료를 수입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이다. 화학 원자재의 경우 국가별로 품질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원재료 수입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에센셜 등 중간 원료 대부분이 즉시철폐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데, 최근 화장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원료 수입 역시 급증한 것도 그 외 품목의 높은 증가율의 다른 원인으로 추정된다.

화학산업 양허유형별 대중 교역 동향



Source: 삼성KPMG경제연구원이 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추계
Note : 2015년 상반기 대비 2016년 상반기의 교역 증감률 추산

중국 환경 규제 현황

대기오염 방지법

- ✓ 주요 업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발생이 많은 6개 산업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발표하여 규제 강화
- ✓ 석유화학, 석유제련, 무기화학, 구리·납·알루미늄 재생업, 합성수지, 화장터를 관리 대상 산업으로 지정

수질오염 방지 행동계획

- ✓ 국무원은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염색, 염료, 농약 등 특정업종 소규모 기업의 생산 활동 금지
- ✓ 환경보호부는 합성수지, 석유제련, 비철금속, 무기화학 업종에 대해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발표

Source: 한국무역협회

한-중 FTA 발효 반년,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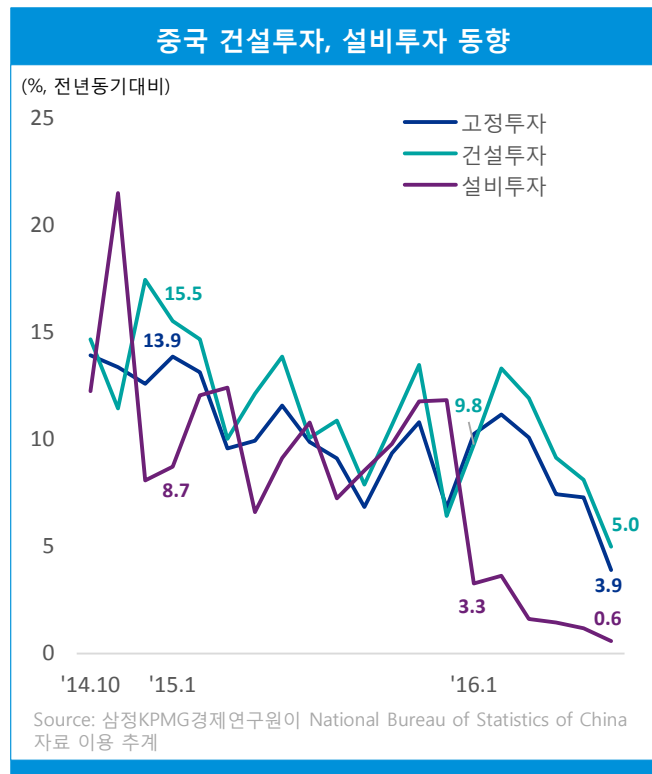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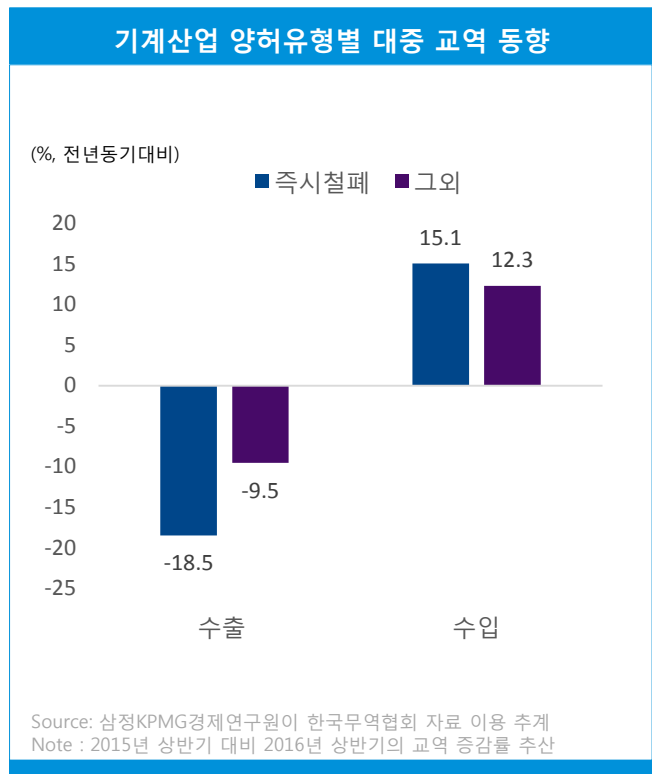
기계 : 중국의 투자위축에 따른 기계설비 수요둔화로 한-중 FTA 효과 미진

기계 산업은 대중 수출에서 즉시철폐 품목의 감소율이 그외 품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 수입에서는 즉시철폐 품목 증가율이 그외 품목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의 주요 기계 수출 품목들은 즉시철폐 대상이 아닌데다가, 중국의 투자 위축에 따른 기계 수요 둔화로 기계산업 대중수출 부진 ”

특히, 한국의 기계산업 내 대중 수출이 한-중 FTA 발효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기대했던 바와 반대로 경과가 나타난 이유 중 하나는 주요 수출품목이 즉시철폐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굴삭기(HS 842852), 리프트·스킵호이스트 (HS 843149) 품목이 장기철폐, 부분감축 등 고수준으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기계 산업 대중 수출에서 관세 철폐로 인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고정투자 증가율 둔화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도 대중수출에 영향을 주었다. 2015년 1월 13.9%이던 고정투자 증가율은 2016년 1월 10.2%를 기록하였고 2016년 6월에는 3.9%로 크게 둔화되었다. 세부적으로 건설투자가 15년 1월 15.5%에서 16년 1월 9.8%, 6월 5.0%로 둔화되었고, 설비투자는 8.7%에서 3.3%, 0.6%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계 산업은 업종 특성상 상당부분이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함하고 있어 중국의 설비투자의 일환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설비 투자 축소로 인해 중국의 기계 수입 수요 자체가 둔화된 상황에서 한-중 FTA로 인한 관세 철폐는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를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중 FTA 발효 반년,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소비재 : 한-중 FTA 발효 후 관세가 즉시철폐된 소비재 교역이 크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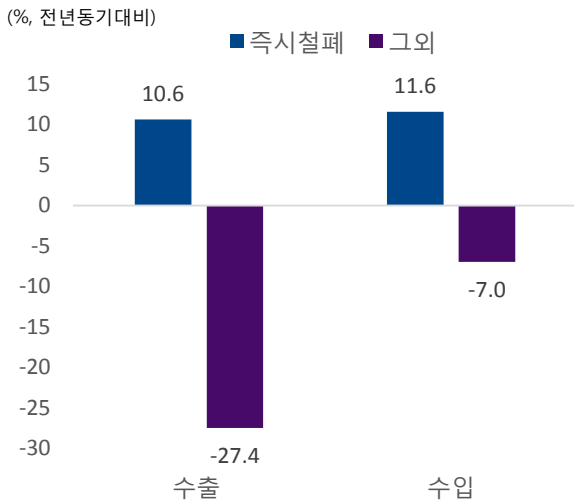
한국의 대중 소비재 수출과 수입의 경우, 즉시철폐 이외 품목의 증감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즉시철폐 품목의 증감률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FTA 발효 이후 즉시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양국간의 의존도가 확대되었다. 즉, 소비재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난 경향이 있다.

“ 소비재에서는 대중수출과 수입 모두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소비재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정책적 노력으로 효과가 증대된 것으로 분석됨 ”

이와 같은 결과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소비재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증감률 차이를 살펴보면 대중수출이 대중수입보다 관세철폐 효과를 더 크게 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리적 인접성, 공유 가능한 의식주 문화 등 한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한류에 따른 중국 소비자의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이 겹쳐지며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가 크게 나타난 데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더욱이, 국내 소비재 수출 진흥책들을 통한 노력의 결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16p 참조).

최근 높은 대중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화장품, 농수산물, 의류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즉시철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의 주요 소비재 수출품인 화장품의 경우 모든 품목이 10년 이상 장기철폐에 해당하며, 의류 역시 일부 5년 단계적 철폐를 제외하고 대다수 품목이 10년 장기 단계적 철폐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비재 산업은 향후 한국의 주력 수출품들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한-중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를 더욱 크게 볼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재산업 양허유형별 대중 교역 동향



Source: 삼정KPMG경제연구원이 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추계
 Note : 2015년 상반기 대비 2016년 상반기의 교역 증감률 추산

양허유형별 주요 소비재 품목

- 즉시철폐**
 - 맥주, 소금, 장난감, 살충제, 인공관절, 인공치아, 의자, 목재가구, 잼, 가공 수산물
- 5년 단계적철폐**
 - 면제 의류, 남성자켓, 양탄자, 광택제, 살균제, 제초제, 소매포장 의약품, 향생제, 탈지면·거즈, 커피 등
- 10년 단계적철폐**
 - 치약, 양초, 피부세척용 조제품, 비누, 가방, 곡식류, 씨앗류, 오이류, 혼합물 카레, 소시지, 꽃게, 굴, 김, 식품용 그라인더, 건반약기, 여성 패션 의류, 인조 섬유 의류, 식탁·주방용품 등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상세설명자료

한-중 FTA 발효 반년,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철강 : 한-중 FTA에도 불구하고, 산업 침체와 철강가격하락으로 수출침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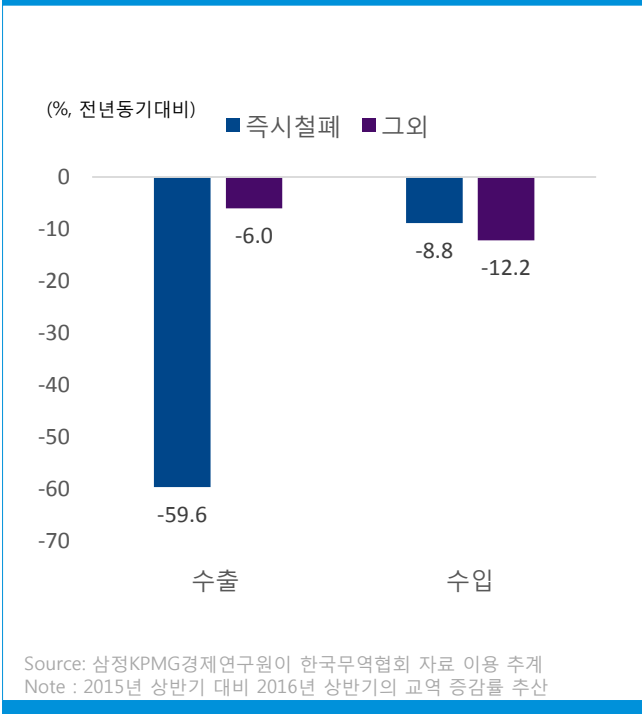
철강 산업 분석 결과 대중 수출에서는 즉시철폐 품목의 감소율이 그외 품목보다 크게 나타났고, 대중 수입의 경우 즉시철폐 품목의 감소율이 더 작게 나타났다. 철강산업의 경기 침체와 철강재 가격 하락이 한-중 FTA 발효 효과를 불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 중국산 철강재의 과잉 공급으로 전반적인 철강재 가격 하락, 철강 산업 대중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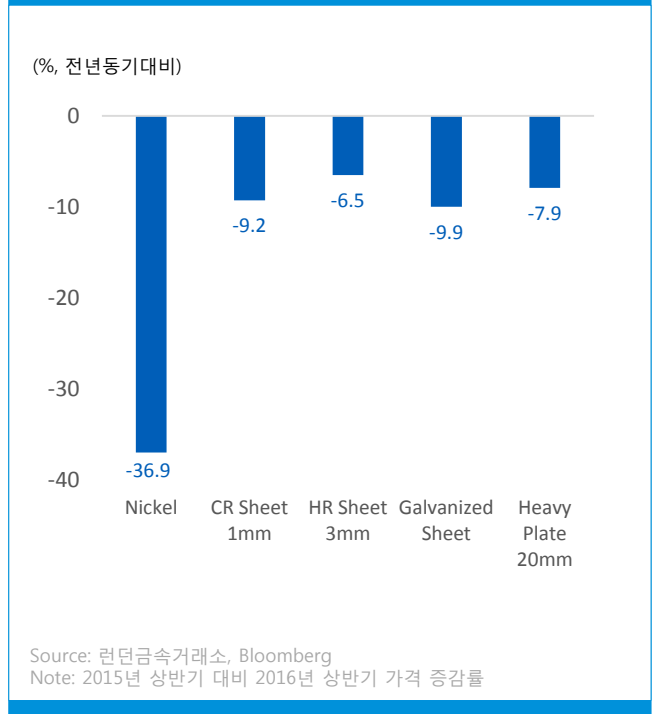
먼저, 즉시철폐 품목에서의 높은 마이너스 증감률 기록은 니켈(Ferro-nickel, HS 72026000)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니켈은 즉시철폐 품목에서 46%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1,914만 달러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60.9%이다. 이와 같은 니켈 수출 규모 축소는 급격한 가격 하락이 주원인으로 추정된다. 니켈 가격은 2015년 상반기 13,687달러/mt에서 2016년 상반기 8,634달러/mt로 36.9% 하락하였다.

철강은 중국의 대표적인 과잉 공급 업종으로, 특히 중국산 철강의 과잉 공급은 전세계 철강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내수 소비로 감당이 되지 않는 철강재가 해외로 헐값에 팔려나갔고, 중국 뿐 아니라 세계 철강재 가격을 하락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철강 수출은 한-중 FTA에 따른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 생산품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려 즉시철폐품목의 수출이 타 품목 대비 크게 늘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한국 수입시장에서는 즉시철폐품목의 경우 이미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저가 제품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를 누린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 양허유형별 대중 교역 동향



주요 철강재 가격 증감률



한-중 FTA 발효 반년,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전자·전기 : 기술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중 FTA 발효 후 교역여건 개선

“ 전자·전기 산업은 중국의 보호수준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교역 조건 개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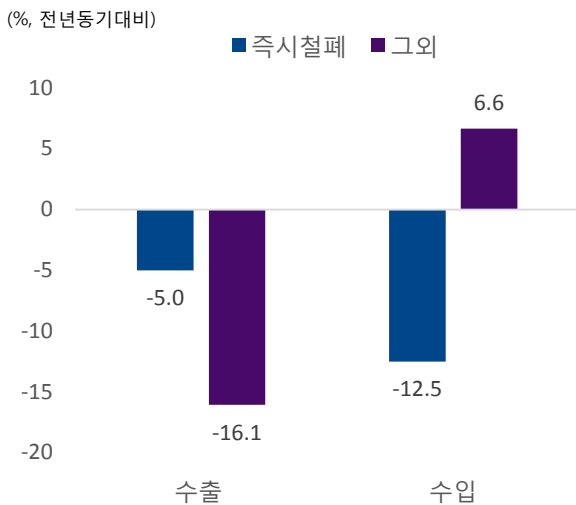
전자·전기 산업에서는 수출에서 즉시철폐 품목의 감소율이 그외 품목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전기 산업의 경우 기술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한-중 FTA 발효 이후 교역조건이 개선된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WTO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ical Agreement)에 따라 상당수 전자부품 관세율이 이미 없으며, LCD(HS 901380) 등 한국의 유관세 핵심 품목은 중국의 보호수준이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술 및 브랜드가 가진 경쟁력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즉시철폐 품목의 감소율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 향후, 전자·전기 상호인증제도의 영향으로 한-중 FTA와의 시너지 효과 기대 ”

반면, 수입에서는 기대와는 달리, 즉시철폐 품목의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그외 품목이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인 점화용 와이어링세트(HS 8544300000), 직류전동기(HS 8501101000) 등의 품목이 즉시철폐에 해당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전기자전거나 전기버스 부품 등의 중국산 수입수요 크게 증대되고 있고, 이중 즉시철폐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수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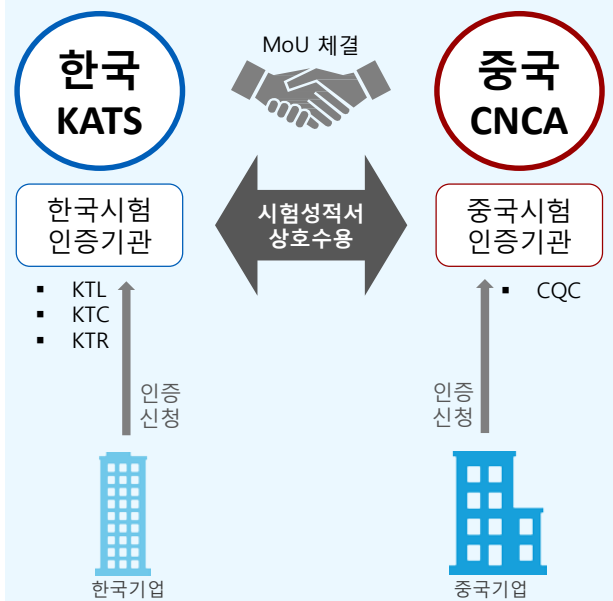
향후, 전자·전기 산업의 경우 FTA 협상시 IECEE CB Scheme(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 시험결과 수용을 촉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한-중 FTA로 인한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합의에 따라 2016년 8월 18일 국내에서 발급한 한국산 TV에 대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가 중국 인증기관 CQC가 인정한 CCC 인증서로 처음으로 발급되었다.

전자·전기산업 양허유형별 대중 교역 동향



Source: 삼성KPMG경제연구원이 한국무역협회 자료 이용 추계
Note : 2015년 상반기 대비 2016년 상반기의 교역 증감률 추산

전자·전기기기 상호인증제도



Source: 삼성KPMG경제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이용 재구성

한-중 FTA 발효 반년,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시사점

한-중 FTA 발효 이후 나타난 수출입 동향 분석 결과 국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4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 한-중 FTA 발효 반년,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

- 1 한-중 FTA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기적 및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
- 2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대응 필요
- 3 한국 내수시장, 저가 중국제품 공략에 대비
- 4 수출지원 정책의 적극적 활용

(1) 한-중 FTA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기적 및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

각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떠한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수출 증대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비재의 경우 중국의 수입구조 측면에서 중국의 전체 수입 중 비중은 중간재에 비해 아직 크지 않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소비재 품목에서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국내 소비재 기업들은 이런 점에 주목하여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또한, 기업들은 향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 품목들의 향후 관세 인하 스케줄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가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관세 인하 예정인 품목 중 품질경쟁력이 우수하고 가격탄력성이 커서 향후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 위주로 중국 현지 시장 특성에 맞는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

“ 한-중 FTA의
향후 경과에 따라
품목별로 기대되는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포착해야 ”

한-중 FTA 발효 반년,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 중국이 관세 이외의 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

(2)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저한 대응 필요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인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모호한 규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대비도 필요하다. 한-중 FTA 협정시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진 산업의 경우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관세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중국은 수입허가 시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성적서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대중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 역시 까다로운 위생허가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다. 특히, 2017년 5월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화장품에도 CFDA의 위생허가가 요구되어 통관규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이 대외국으로 부터 직면해 있는 비관세장벽은 총 48건으로, 중국의 비관세 장벽(26건)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덤핑 수입규제도 현재 11건으로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 주요국별 한국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현황 >

(단위: 건)

국가	비관세장벽	수입규제			비관세+수입규제
		반덤핑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중국	26	11	0	0	37
미국	3	16	7	0	26
일본	4	1	0	0	5
EU	0	6	0	0	6

Source: 한국무역협회
주: 2016년 8월 기준

“ 향후 중국의 저가제품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의 경쟁과밀화가 진전될 수 있어, 제품차별화 등의 전략 수립 필요 ”

(3) 한국 내수시장, 저가 중국제품 공략에 대비

내수 중심 기업의 경우, 한-중 FTA 발효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중국산 저가 제품의 한국 내수 시장 공략에 대비해야 한다.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각종 가전제품 및 패션·생활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다양한 저가제품들이 내수시장에서의 마켓셰어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고기술·고품질이 요구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피해 업종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들에서 한-중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격 전략이 아닌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의 품질 차별화, AS 서비스 등의 사후서비스 차별화 등의 전략이 요구된다.

한-중 FTA 발효 반년, 어떻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 각 기업들의
생산 제품 및 경영
여건에 맞는 수출지원
정책을 활용할 기회를
탐색해야 ”

(4) 수출지원 정책의 적극적 활용

정부는 한국 수출 둔화에 따른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2015년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비재 수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5대 유망 품목으로 선정된 화장품과 식료품은 한국이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품목으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책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떨어지고 비관세장벽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활용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세계 주요 시장 진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은 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맞물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사안에 따라서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애로사항들이 존재한다. 대외거래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정책 지원들은 기업들의 수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소비재 수출 진흥책 진행 현황 >

정부 일정	일시	주요 내용	세부 계획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계부처 합동)	'15.07.09.	유망 소비재의 수출 상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 소비재 발굴 및 한류마케팅 ✓ 한국산 정품 인증 및 해외인증 획득 애로 지원 ✓ 중국 소비재시장 개척노력 강화
수출진흥대책회의 (관계부처 합동)	'15.11.11.	차세대 주력품목 발굴 및 유망품목 수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 분야 글로벌 명품 육성전략 5개년 계획 수립·추진을 결의 ✓ 소비재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태계 조성 ✓ 기업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추진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15.12.16.	유망품목 수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집중 지원 추진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계부처 합동)	'16.02.17.	5대 유망소비재 수출 주력품목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개 프로젝트 2조 9천억원 지원 ✓ 물류, 비관세장벽 등 해외진출 애로 해소 지원
제2차 민관합동수출투자대책회의 (관계부처 합동)	'16.03.24.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 특성을 반영한 수출 마케팅 지원 강화 ✓ 비관세장벽, 위조상품 문제 해소 추진 ✓ 프리미엄 소비재 개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이 각 정부부처 공식발표자료를 활용하여 정리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범석
원장

edwardkim@kr.kpmg.com

이광열

상무이사

kwangryeolyi@kr.kpmg.com

김광석

수석연구원

gwangsukkim@kr.kpmg.com

김수경

선임연구원

sookyungkim@kr.kpmg.com

차윤지

선임연구원

yoonjicha@kr.kpmg.com

최근 발간물

Samjong INSIGHT

45호: 금융산업의 10대 Big Issues

44호: 리질리언스(Resilience),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유전자

43호: 소비패턴의 11가지 구조적 변화

42호: 미래 자동차 시장의 역학

41호: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

40호: 유통·소비재 기업의 Next Business

39호: 글로벌 화학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전략

Issue Monitor

60호 : 블랙체인이 가져올 경영패러다임의 변화, 금융을 넘어 전 산업으로

59호: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기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58호: 코코본드, 기회인가 위험인가

57호: 중국 요우커의 새 주인공, 싼커(散客)에 주목하라

56호: 태양광 산업의 사업모델 혁신: 해외시장으로의 Downstream 전략

55호: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54호: 제조업 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뉴쇼어링(New-Shoring)

53호: 해외직구·역직구 동향분석 - 해외직구를 넘어선 역직구

52호: 국내 클라우드 도입 이슈분석-주요국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51호: 제로에너지빌딩, 미래 건설산업의 신패러다임

50호: 저성장의 극복, 제조업의 설비에 주목하라

49호: ICT 특허분쟁 다음은 자율주행이다

48호: 중국의 스타트업, 창커(创客) 열풍과 우리의 기회

47호: '원샷법', 기업은 무엇을 바라는가?

46호: 소비재, 수출 회복을 견인할 것인가? 지연시킬 것인가?

45호: 석유시장의 지각변동과 생존전략

www.kr.kpmg.com

© 2016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